

효성, 풍력 국산화 공동사업 추진

현대중공업·남부발전과 협약 서명식 ... 2MW 발전기 100개 설치

효성이 현대중공업과 함께 풍력발전기 국산화 사업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효성과 한국남부발전, 현대중공업 3사는 9월3일 <풍력 국산화 공동사업> 협약 서명식을 갖고 본격적인 풍력발전기 국산화 작업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강원도 태백 지역에 20MW급 풍력단지 조성을 시작으로 2012년까지 정선과 삼척 등에 2MW 발전기 100기를 설치할 계획이다.

해상풍력으로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제주·부산 지역에 해상 풍력발전기를 설치하는 계획도 세우고 있으며, 부산에는 풍력 설비 상태를 원격 감시할 수 있는 풍력원격감시센터도 설립할 예정이다.

국내에 설치된 200여기의 풍력발전기는 대부분 수입되거나 외국기술을 도입해 제작한 것으로 2008년 기준 국산 풍력발전기는 중형급 750kW 단 1기에 불과했던 것으로 알려져 국산화 사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09/03>